

닭고기 신선도 색깔로 확인 가능

농진청, 휘발성 염기 질소로 신선도 판정

한국인의 닭고기 사랑은 유별나다. 소 돼지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뿐 아니라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해마다 소비량이 늘고 있다. 하지만 백색육인 닭고기는 육류 중 상하기 쉬운 편에 속해 신선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닭고기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 닭고기 신선도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닭고기 신선도 모니터링용 필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육류는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표면 미생물과 단백질 및 지방이 화학

한다. 특히 단백질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아미노산, 암모니아, 아민 등 휘발성 염기 질소(VBN)는 부패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육류 신선도를 판정할 때 지표로 활용된다.

연구진은 이 점에 착안해 에틸렌 초산 비닐(EVA) 합성수지에 색 변화 성분과 특정 용액을 섞어 필름을 만들었다. 이를 닭고기 포장 상층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위에 부착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필름을 적용해 본 결과, 휘발성 염기 질소 농도가 초기 부패 단계로 판정하는 20mg%가 되면 필름이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변했다. 냉장 온도와 실온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닭고기 신선도 모니터

링용 필름이 일반적인 식품 검사법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게 닭고기 신선도를 판정할 수 있어 유통 닭고기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 이용과 송금찬 과장은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선 축산물의 품질 관리 및 점검(모니터링) 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앞으로 축산물 안전 소비를 위해 닭고기뿐만 아니라 소·돼지고기 등 다른 신선육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도내 청소년 및 도민을 초청해 2024 제이비스타(JB-Star) 인문학 콘서트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이비스타 인문학 콘서트'

전북은행장문화재단, 도내 청소년·도민 대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재)전북은행장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27일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도내 청소년 및 도민을 초청해 2024 제이비스타(JB-Star) 인문학 콘서트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콘서트는 다양한 게임과 퀴즈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시간과 인기 가수들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감성 발라드 싱어송라이터 피엘의 무대에 이어 매력적인 음색의 케이스가 감성 짙은 노래를 열창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가수 피엘과 케이스의 자필 사인의 행운은 총 30명의 관객들에게 돌아갔다. (재)전북은행장문화재단 관계

자는 "이번 인문학 콘서트를 통해 청소년들과 도민들이 지친 일상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을 수 있는 하루였기를 바란다"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전북은행과 함께 도내 청소년들과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콘서트에 참여한 학생은 "다양한 게임을 통해 경품을 받게 되어 기뻐했는데,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어서 더 행복했다"며, "2024년 중 최고의 하루였다"고 말했다.

한편, (재)전북은행장문화재단에서는 매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문화활동 지원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많은 문화적 혜택을 주고 있다. /오만호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나경균 사장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에 앞장서고자 사회관계망(SNS) 릴레이 캠페인 '바이바이(Bye Bye)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자는 플라스틱과 '안녕(Bye)'이란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사진을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나경균 사장은 공사 캐릭터인 새공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며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물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재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고 올바르게 배출하기 등을 강조했다.

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친환경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매년 전직원 해양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철에는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시민과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환경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 기간에 맞춰 2회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개공,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 열린강좌 개최

'도시재생 정책 동향·주민 참여의 도시재생사업 사례' 주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30일 전북개발공사 대강당에서 '도시재생 정책 동향 및 주민 참여의 도시재생사업 사례'라는 주제로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 열린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도시재생사업 사례와 정책동향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

청주시 지역재생사회적협동조합 권순택 이사장은 '도시재생추진협의회에서 지역재생사회적협동조합으로'라는 주제로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지역재생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운영관리 중인 청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도시재생허브센터 운영 사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거점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고민들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인 뉴:빌리지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주)에이엔유플래닝그룹 안준

홍 대표가 뉴:빌리지 공모사업 관련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사후관리방안을 모색하고, 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정책 동향을 파악해 공모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할 자료이며, 도내 시군과 원팀이 되어 국토부 공모사업에 대응함으로써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통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주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 교육 운영 및 직무역량 특화과정을 통한 타지역 선진사례 답사 등을 지원하고,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전 전문가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시군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환경청, 전북자치도와 수해대비 공동 대응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여름철 수해 대비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구축하여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응 체계는 전북지방환경청이 국가하천구역에 실시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한 CCTV와 전북자치도 내 14개 시·군에서 사용중인 재난 음성 통보시스템을 전국최초로 결합한 재난대응통합시스템 활용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재난대피방송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난대응단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써,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와 상향별 세부 매뉴얼 및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 후 준비태세를 완료하였다. 실제로 지난 10일 4시 30분경 완주군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민경강 상류 고산면 부근의 수위가 급상승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던 전북지방환경청 홍수대책 상황실에서는 홍수량 저감 및 제방유류 방지를 위해 영상강홍수통제소에 즉시 연락하여 경천·대이저수지 방류 중지를 요청했다. /김욱기 기자

바이오진흥원, 사회서비스원과 지역사회 발전 협약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출연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의 추진 및 발굴 등 나눔 실천 관련 상호 협력하여 '출연기관이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를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흥원과 사회서비스원은 상호협력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지속적인 협력과 나눔 실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도내 식품기업 경영 2세 및 청년 식품 창업가 33명으로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단체 '천년전북 청년식품'을 비롯해 사회공헌활



동 희망기업 22개소와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등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바이오 및 식품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